

“방역·경제회복 모두 잡겠다 했는데…”

작년 11월 출범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 역할 미진 도의회 “절박한 상황 몰린 소상공 지원책 마련” 촉구

제주 방역체계 수립과 일상회복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지난해 11월 출범한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역체계 한시적 전환에 따라 ‘제주형 일상회복 로드맵’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11월 15일

공식 출범한 민관합동기구다. 지원위원회는 경제민생·문화관광·사회안전·방역으로 등 4개 분과로 나눠 운영되며 분과 위원은 도부서장, 도의원,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출범 당시 제주도는 위원회가 제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실무위원회 자문을 거쳐 발굴된 과제들에 대한 검토 및 제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출범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전체위원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분과위원회 역시 사

회안전·방역으로 2개 분과의 회의만 개최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제주뿐 아니라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조기 중단되면서 일상회복 추진보다는 방역 체계 구축에 주안점을 뒀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이달 중 각 분과에서 발굴된 시책 과제를 통해 내달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범도민지원위원회 역할 미흡 등에 대한 지적속에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포스트코로나특별위는 서울시 사

례에 주목했다. 서울시는 최근 1조 8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민생지킴이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기존예산 외에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8576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이다.

강성민 위원장은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제주보다 좋아서 이런 대책이 나왔다고 보지 않는다. 재정여건은 제주가 나은 편”이라며 “제주도정이 도민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기존의 정책을 답습한 것은 무사안일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성과도 전혀 없는 수준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자영업계가 절박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도두 장례식장 반대대책위원회가 18일 제주시청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건축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하수처리장 악취에 이젠 장례식장까지” 도두2동 반대대책위 회견 “생활환경피해 자명”

제주시 도두2동에 장례식장 조성이 추진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도두 지역 주민과 오일장 상인 등으로 구성된 도두 장례식장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18일 제주시청 앞에서 출범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도두 장례식장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반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항과 인접한 제주도의 관문인 도두 지역에 제주 최대 규모의 장례식장을 건설하려는 것은 기획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두2동은 일제 강점기 때 공항 건설로 대부분의 주민이 고향과 땅을 잃었고 두 차례 제주국제공항 확장으로 개발독재시대에 강제로 막대한 재산을 공항 측에

권 행사를 못한 채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악취 피해, 렌터카 과밀지역으로 인한 교통체증·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두 장례식장은 허가 기준에 역지로 끼어 맞춘 듯 190여대만 주차할 수 있는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해 길거리 주차가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해 주변 교통혼잡은 가중되고 이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피해가 뻔히 예견된다”고 강조했다.

반대위는 “제주도는 마을주민과 토주주 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례식장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만약 허가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사적으로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시 도두2동에 추진되는 장례식장은 9442㎡ 부지에 연면적 5894㎡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추진되며 최근 건축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애기동백과 한라산 만설 18일 서귀포시 남원읍 휴애리자연생태공원에 활짝 피어난 빨간 애기동백꽃이 만설을 이룬 한라산과 어우러지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작년 체불임금 신고액 155억 근로자 수 2821명… 건설업이 42%로 최다

11억 여원은 아직도 미해결

제주지역에서 지난해 청산해야 할 체불임금이 11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8일 발표한 지난해 12월 말 체불임금 실태 분석 결과 체불임금 신고액은 총 155억원으로 전년 동기(162억원) 대비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 관련 사업장 수는 1134개소로 전년 동기(1318개소) 대비 14% 줄었으며, 근로자 수는 2821명으로 전년 동기(3017명) 대비 6.5%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24.2%를 차지했다.

신고액 중 144억원(92.5%)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해결됐다. 이를 제외한 사실상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11억7600만원(7.5%)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액은 16억원으로, 전년 동기(18억4900만원) 대비 13.1%, 관련 사업장 수는 184개소로 전년 동기(206개소) 대비 10.7%, 근로자 수는 348명으로 전년 동기(371명) 대비 6.2% 각각 감소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중 15억4400만원(96.1%)은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해결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6200만원(3.9%)으로 집계됐다.

해경, 밀수 특별단속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 분위기를 틈탄 해상 밀입국·밀수 등 각종 국제범죄 발생을 예방·차단하기 위해 특별전담반을 편성해 다음달 4일까지 외사활동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해상에서 어선·소형보트를 이용한 밀입국·공해상 밀수 범죄 ▷수입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 불법유통 사범 ▷중국발 수입금지 물품(식육가공품 등) 밀수입·불법유통 행위 등이다.

송은민기자 seb1119@ihalla.com

탐라문화광장 내 음주행위 첫 적발

‘음주 청정지역’ 조례 제정 이후 제주시 일도1동 탐라문화광장 내에서 첫 음주 단속 사례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탐라문화광장 내 버스 정류장에서 음주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주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에서의 음주에 대한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위반 시 적금 단속을 예고했다.

자치경찰은 또 지난해 10월 ‘제주도 금연구역 추가지정 고시(산지전일대)’를 통해 올해부터는 탐라문화광장에서의 흡연행위도 적금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 또는 흡연으로 단속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납 시 최고 75% 금액이 가산되고 압류 조치도 병행된다.

영등이 시킨 겨울~

제주 시민만을 위한 노비타비데로 겨울나기

2022. 01. 18 ~ 02. 28

특별 할인혜택

1년치 필터(2개)

무료 설치

에코백 증정

닥터클린 10%할인

3년 무상 AS

강력 방수

01

7만원 할인

BD-AFE50N

#생활 방수 #어린이 기능 #자동노즐 세척

299,000원 → 229,000원

02

7만원 할인

BD-CD51N

#방수등급 IPX5 #자동노즐세척 #원적외선 건조

399,000원 → 239,000원

BEST

03

4만원 할인

BD-H700HO

#매일자동살균! #손 대기 삶은 도기까지 살균! #방수등급 IPX7 #원적외선 건조 #3WAY, 3D노즐 #3분 케어

399,000원 → 359,000원

닥터클린 서비스 할인 접수 방법

노비타 홈페이지(www.novita.co.kr) > 제품 등록 > 쿠폰 발급

※ 홈페이지에서만 혜택 적용 가능 (유선, 방문 신청 시 적용 불가)

주소 : 제주시 연삼로 17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1**